

# 도전적인 여성과학자는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

글 | 이홍금 \_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소장 hkleee@kopri.re.kr

**뉴**스로 많은 소식을 접하면서 가장 신나는 것 중의 하나가 스포츠계에서 여성파워의 놀라운 발전이다. 이삼십 년 전부터는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경기 등에서 얇은 선수층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이제는 양궁을 비롯하여 사격, 쇼트트랙 빙상, 골프 등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다. 좋은 경기 결과를 접할 때마다 우리 나라의 여성과학기술자들도 국내 외적으로 미래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인정받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게 된다.

얼마 전 러시아와 호주의 원로 극지과학자들로부터 외국에서는 선박, 항공, 기지 운영 등 극지지원과 관련하여 이미 국가를 대표하는 담당자로서 4명의 여성이 있었고, 월동대원으로 남극기지에서 1년 이상을 보내는 여성과학자가 수십 명이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드넓은 바다나 남북극, 우주항공 분야와 같이 복합 거대과학분야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외국과의 격차가 더욱 큰 것을 느꼈다. 우리 나라의 강인한 여성 파워가 이러한 거대과학 분야에도 활발히 진출한다면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차이를 좁히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 여성과학기술자에 대한 지원 더욱 확대해야

얼마 전 한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여성과학자가 함께 모여 '여성'과 '과학'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제는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사업으로도 여성과학자 협력분야에 지원하는 등 여성과학자를 위한 다양한 국가적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활성화되고 있다. 여성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미래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여성과학기술인의 능력 발휘를 위한 정책,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과학 문화활동, 범부처 협의하에 다양한 분야로의 여성 진출의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과학기술

술단체총연합회,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의 단체에서는 여성과학자들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여건 마련 및 여성들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지원·격려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여성과학기술자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대하여 십수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의 적극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필자가 입학시험을 치르던 날 화장실이 어딘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정도로 여자 화장실 문제로 고민을 하던 때, 그리고 채집을 가려면 출발 삼일 전부터 식이요법을 하여 하루 종일 화장실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경을 쓸 때와 달리 지금은 채집을 가도 참 편하게 다니고 있다. 연구비가 늘었으니 배를 타도 이제는 조금 큰 배를 타고, 선배들이 완행열차 타고 배로 다녔던 제주도도 비행기 타고 가서 공항에서 몇 박스의 짐을 렌트카에 싣고 현지까지 갔다 오는 등 상대적으로 참 편하게 연구를 한다. 집에 있는 가족이 걱정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동통신으로 연락하고, 멀리 떨어진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도 남녀 구별 없이 각자 맡은 연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여성과학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지구과학, 우주과학 같이 정말 큰 자연을 상대로 탐구하는 분야나 토목공학 같은 분야에서 여성인력이 적을까. 어렸을 때부터 모두 의사, 한의사, 법률가가 되는 꿈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멋진 백색대륙이나, 넓디넓은 태평양, 아마존의 정글, 밤하늘의 예쁜 별들, 은빛물결이 반짝이는 바닷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살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중학교 시절에 이미 상실되는 것일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남자와 여자는 유전적인 차이도 많고, 감각이나 직관능력의 차이도 있다. 더욱이 살아 온 경험의 차이는 더욱 크다. 전문분야에서의 사고 패턴과 논리 패턴의 차이는 맡은 일의 해결방식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섬세함을 장점으로 내세운 분야에 여성 인력이 집중하는 것도 BT나 IT 외의 분야에 진출하는데 대한 선입관을 가지게 해 결국 창의력과 다양성의 새로운 공급


원으로서 여성의 잠재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기존의 과학기술인력의 공급이 곧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젊은 여성과학도가 남들이 흔히 택하지 않는 전공분야에 대해 도전의식을 갖고 전문가가 된다면 과학기술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는 확실할 것이다.

여성 공학도도 늘어나고 있고 자연과학 전공 여성인력도 늘고 있다. 이공계 전공 여성인력들이 졸업 후에도 각자의 전공을 살려 과학기술계에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 여성 과학 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부문에 진출을 권장할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학생들의 진로지도와 과학기술계에 대한 전망과 성공한 선배 여성과학자에 대한 역할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정부와 언론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산업사회에서 남성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해온 제도를 여성에게 맞는 조직 및 체제로 개발하는 노력 없이는 여성이 겪는 제약과 불편함은 여성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외면할 뿐이다. 정치, 법조계 못지않게 여성과학기술 지도자가 개발되고 그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과학기술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결국 획기적인 정부의 예산 지원과 여성과학기술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 강한 체력 길러야 현실적인 난관 극복 가능

WISE 프로그램이나 학회에서 이공계 학생, 젊은 여성과학자를 만나면 항상 제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 가정보존과 육아 문제다. 이는 과학기술자를 비롯한 여성 전문인력에게 공통되는 사항으로 여성에게는 두 개의 직장을 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뽕족한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이다. 가정살림과 육아는 이전에 비해 남성들의 참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중노동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지 않아 사회가 의무분담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여성의 자아실현

을 위한 의욕이나 그 실행에 대한 배려는 항상 남성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여성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가족과 직장에서의 이해를 얻고 직업전선에 있더라도 육아문제, 자녀교육문제는 항상 쫓아다니는 문제이므로 사회구조와 조직에서의 적응력이 취약하게 되고 자칫 자신의 비전 실현과 직장에서의 성취의욕 약화로까지 이어져 평생직장의 꿈은 멀어지게 된다.

사회구조가 여성에게 적합한 많은 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설령 많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여성이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조직에서의 장악력을 확보할 정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키워 온 자기 꿈의 실현에 대한 열정과 확신감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잠을 적게 자고 남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정과 육아에 투입해도 견딜 수 있는 체력뿐이다. 필자가 30대에는 학위과정에서 밤 쉼 때도 많았고 40대까지 육아와 가정살림을 직장생활과 잘 병행시키고 50의 나이에도 30대의 연구원과 같이 밤늦도록 같이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것은, 몸이 약하다고 중·고등학교 시절 매주 같이 등산하고 운동한 아버지 덕분이었다. 어릴 때부터 여성과학기술자로서의 꿈과 강인한 체력을 기르는 데는 크고 넓은 자연과 자주 접하면서 체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은퇴 후에도 과학기술계의 서포터즈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결고리와 건강을 유지시켜줄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연구소, 산업계의 직장 모두에서 체력단련과 건강유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충분한 경상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